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신 현명한 령도

김 정 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밑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는데서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기 위한 대기념비를 잘 형성하는것이 중요하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368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한평생 제일 깊이 마음써오신 문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자면 온 민족이 공감하고 반아들일수 있는 통일의 기치를 더욱 선명하게 내세워야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로부터 주체85(1996)년 11월 판문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친필비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교시와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립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유훈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칭송하는 기념비를 건설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에 관한 사상과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그 기치따라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야말 겨레의 의지를 담아 평양의 통일거리입구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일떠세울 구상을 펼쳐주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구성방향과 형성안창작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위치를 옳바로 잡아주시고 기념탑의 구성방향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모든 건축물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기념비건립에서 위치와 형식문제는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89(2000)년 5월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에게 지금 건설하고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삼각형으로 세우면 공중에서 볼 때에는 균형이 잡혀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아무래도 경사지게 보인다고 하시면서 설계가들이 탑건설설계를 과학적으로 잘 타산하지 못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9(2000)년 5월 11일에도 또다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에게 자신께서 오늘 평양으로 들어오면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울 자리를 생각해 보았는데 평양-개성도로 입구에 《평양은 조선의 심장》이라는 구호가 있는 그 위치에 도

로를 중심으로 세우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하여야 구색에 맞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형성도안을 만들고 위치로는 이자 말한 그 장소에 세워 개성이나 원산에 오갈 때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올 때 차를 타고 쪽 바라보면서 오다가 그 밑으로 통과하면 아주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오늘 그곳을 천천히 지나면서 자세히 보았는데 거기가 제일 리상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탑신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울 위치를 잡아주시기 위하여 현지까지 친히 돌아보시고 확정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형성안창작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어디까지나 설명이 없이도 내용이 명백하게 나타나도록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래의 탑형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인물중심의 기념비로 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새 세기 기념탑을 대표하는 본보기탑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물위주의 기념탑형성안을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전국의 창작기관들과 설계기관들에서 현상모집하여 훌륭히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을 비롯한 전국의 창작가, 설계가들은 새 세기를 대표하는 독특한 인물위주의 탑형성안을 완성하기 위한 긴장하고도 힘찬 전투를 벌려 4가지 형성안을 완성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4개 안으로 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형성안중에서 1안이 좋다고 하시면서 기념탑의 높이는 30m, 너비는 61.5m, 조각의 높이는 20m로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조각창작단에서는 주체89(2000)년 10월 9일부터 기본주제축소형완성전투에 들어가 11월 12일 축소형을 완성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완성된 탑축소형을 보아주시고 대단히 잘되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탑의 형성안을 완성시켜주신데 이어 탑의 부주제부각군상초안을 완성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탑의 좌, 우, 앞, 뒤 4면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통일조선 만세!》편으로 부주제부각군상을 형상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본작의 크기에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 형상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부주제부각군상을 형상하기 위한 충정의 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들은 주체90(2001)년 3월 14일부터 본작창작을 진행하여 주체90(2001)년 4월 14일에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훌륭히 건립할수 있는 준비사업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설을 위한 시공전투를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설은 매우 방대한 공사였다. 탑신공사를 제외하고 기념탑 주변을 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만도 룡선지대를 폭파하고 6만㎡의 토량을 처리하여야 했으

며 우회도로건설을 위한 1만㎡의 굴착과 4만㎡의 박토처리가 제기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9(2000)년 10월 18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건설지휘부를 꾸려주시고 건설은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당시)이 맡아 10월 하순부터 건설을 시작할 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기념탑에 필요한 자재, 연유를 내각이 책임지고 어김없이 보장하며 특히 전기석탄공업성(당시)에서 돌생산을 비롯하여 기념탑건설에 필요한 전기를 건설에 지장없이 보장하도록 대책을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건설자들은 주체89(2000)년 11월 중순까지 근 4만㎡의 박토를 처리하고 700여m의 원형우회도로를 형성하였으며 기초굴착과 600여㎡에 달하는 철근콘크리트치기를 와닥닥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탑건설을 맡아하고있는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당시)의 건설자들에게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시기이지만 필요한 식량과 부식물을 무조건 보장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공사를 시작하여 3개월 남짓한 기간에 5만 5 000㎡의 토량공사와 596m의 우회도로공사, 다리해체공사, 지하건능길굴착공사, 탑기초공사를 완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건설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몸소 건설장을 찾으시어 탑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탑건설에서는 부주제부각군상과 함께 교양마당을 잘 건설하는 것이 탑의 교양적의의를 부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며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제비를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0(2001)년 7월 4일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처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비둘에 수령님의 명제를 모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원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 우리 인민과 남조선인민들,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시대의 기념비로 훌륭히 건립되었으며 주체90(2001)년 8월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인사들의 참가밑에 그 준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에 의하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대기념비로 훌륭히 건립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한길로 더욱 힘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새 세기 첫 기념탑으로 거연히 일떠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장군님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민족자체의 노력으로 조국통일성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온 겨레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로 솟아오른 선군시대의 만년대계의 기념비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건립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할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선군시대의 대기념비로 높이 솟아오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을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